취재노트

술독에 빠져버린 대동제

◇…고황골인가? 주당골인가?

본래 대동제라 하는 것은 대학문화의 축적된 역량을 발표하고 獅형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자 다양하고 창조적인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인 줄 알았소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고황골 전체의 술주정이 무척 심하다고.

캠퍼스 어디를 가도 주점만 즐비하니….

아니 獅형님들 대대로 술에 원한 맺힌 조상님들이라도 있는지요?

◇…다목적용 주보

요즘들어 부쩍 주보가 잘 나간다기에 노트子 심히 흡족한데 또다른 쓰임새도 생겼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뭇가지에, 길바닥에 음식찌꺼기와 술로 얼룩져 있더이다. 獅형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주보의 쓰임이 그리 다양화되는 것은 좋지만, 필히 일독 하시는 일을 잊지 말도록!

◇…민자의 고백

툭하면 터질 것같은 재벌님들에 대한 우리 종이 공룡의 사랑은 가히 맹목적이고 헌신적이외다.

한없는 정성으로 재벌님을 비호하다가 누가 당신을 매도한다면 국민을 우롱해 우리의 불륜의 정을 속이구서라도 당신을 쫓아가야죠.

민자가 돕지않는 독점기업이 어찌 있을 수 있으며, 그대(?)들 없는 이 민자아씨(?)는 외기러기 짝사랑을 할 수밖에 없사와요.

◇…헛수고

책이 닳을수록 도서관은 조용하다는 것도 이제는 머언 옛말인듯.

고황골 도서관이 일부 獅형들이 무심히 흘린 소음, 휴지, 침에 깔려 휘청거리고 있다는데.

獅형님들, 무슨 책인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침에 가려 활자가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소이다.

◇…누가 누가 센가(?)

서천골에 수화(手話)를 과격히 사용하는 獅형들이 있다하여 노트子 뛰어가보니, 某과 獅형들과 某과 獅형 6인이 번지없는 주막에서 주먹과 발길질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했다하더이다. 더구나 지나가던 某 獅형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꼴….

대동의 본뜻이 하나로 어우러지자는 의미인데 술기운을 빌미로 서로를 질시해서야 되겠소이까.

국비 해외파견 본교교수 확정

90학년도 '문교부 국비 해외파견 교수'로 본교 4명이 선정됐다.

지난15일 있었던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김병진(법대·법학과)교수가 인문사회계열 이주희(의대·의학과)교수가 =POST-DOC, 백영숙(자연대·화학과)교수와 오환섭(공대·기계과)교수는 기초및 첨단과학분야이며, 오는 8월이후 1년간 해외파견되어 연구활동을 할 예정이다.

수원 19일부터 여성학교 개강

수원캠퍼스 총여학생회는 '용감한 여성상의 확립'을 위한 여성학교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체육과학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한다.

29일 개학식을 시작으로 개최되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9일=개학식및 그림이어붙이기, 민중가요및 개사곡 경연대회, 외대노래패공연, 초청강연 '성과 권력'

△30일=영화상영 '작은 풀에도 이름이 있듯이', 작가와의 대화('절반의 실패'의 작가 이경자)

△31일=오숙희 대구계명대 여성학강사의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초청강연 폐교식 및 대동놀이

의대 '제16회 의황제' 열려

의과대학 학생회는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대운동장, 의약관 앞마당 등에서 '제16회 의황제'를 개최한다.

의대 학우들의 단결과 친목'을 위한 이번 행사의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30일:의황 대동체육한마당, 오전 11시부터, 대운동장 및 의약관 앞마당

△31일: 의학은 해볼만한 것인가'라는 주제의 김광원(의대·내과)교수 초청강연

메디칼 가요제, 오후 5시부터, 인간교실

△6월1일:의황의 밤

법대 '제22회 오월해방제' 개최

법대 학생회는 법대학생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제22회 오월해방제'를 연다.

'오월해방제'의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30일; '남·북한 헌법비교와 통일헌법"에 대한 심포지엄, 오후4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법학과 학회연합회주최

▲31일;체육대회 (양과별 4개팀 대항전) 오전 9시30분부터 대운동장

마당극=행정학과 2개 학회원이 참가해 김지하의 "밥" 공연.

◇독자투고…수원캠퍼스의 교수정원및 학습체제의 문제점

학문의 질적저하 우려되는 교수부족

사회대 경우 학생수에 비해 교원수 크게 미달

과다 수강인원에 교수의 강의 부담도 커

I. 들어가는 말

'세계로 웅비하는 경희', '21세기를 주도하는 경희'라는 슬로건아래 대학을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어렴풋이나마 수원캠퍼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특히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수 수의 부족은 수원캠퍼스가 안고있는 제반문제점 중 학생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이같은 교수부족이 특히 심한 사회대의 경우 교수1인당 학생수의 비율이 모두 70명을 넘고 있다는 것은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학년도 문교부 대학정원 조정 지침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의 질적향상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다. 여기서 문교부 또한, 교육의 질적향상을 교수확보율, 즉 교수충원에 두고 있으며 학습체제와 관련된 문제들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II.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교수정원의 실태 및 문제점

대학교원 1인당 대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학교원 1인당 학생수는 먼저 1970년에 18.8명 으로 가장 적었으나 1985년에는 70년에 비해 거의 두배에 가까운 35.8명으로 증가되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와 더불어 대학생수가 급격히 불어났지만 교원 수는 그 비율을 따르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1인당 학생수는 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8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이 25.9명, 사립대학이 37.1명으로 나타나 사립대학의 교수확보율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대체로 교수정원은 최저수준의 기준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각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및 근무부담에 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교수정원의 주요문제점을 몇가지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교수 수에 비해 학생수가 과다하다. 전술한바와 같이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가 33.6명에 이르고 있고 대학원 학생까지 합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평균 36.1명으로 늘어난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1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 대 학생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렇듯 전임교수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래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둘째, 강좌당 학생수가 과다하다. 강좌당 수강학생수는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또는 전공이냐 교양이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수와 학생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좌당 학생수가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수의 수업부담이 과중하다. 우리나라 교수의 주당 강의 시간이 평균 9시간 정도임을 비교해볼때 대부분의 교수들은 강의외에 논문지도, 연구수행, 학생지도 등 많은 시간을 강의외적인 비율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게됨으로 인해 그로인한 강의부실과, 연구소홀, 학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하겠다.

III. 수원캠퍼스에 있어서의 교수현황과 학습체제의 문제점

문교부 지침에 의하면 89년도 우리나라 전임교원대 학생비는 국민학교 1:36, 중학교1:35.5. 고등학교 1:29.4, 국립대1:28.1 사립대 1:40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현재의 수원 캠퍼스의 수업법정 강의시간이 16주 이상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학기별로 이수하고 있는 강의시간을 보면 1학기에는 14-15주, 2학기 에는 11-13주가 일반적 관례화되어 강의시간을 제대로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수업체제에 관련된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수있다.

첫째, 강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강의계획서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거나 늦게 배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강의시에는 강의계획서 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수업단위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관계로 강의 중심적이며 학생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세째,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지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이며, 과제물의 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

IV. 나오는말

앞서 제기되었던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수원 캠퍼스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서울 캠퍼스는 물론 제 2캠퍼스를 가진 대학 대부분이 안고있는 제반문제라 하겠다. 그러면 앞서 제기한 교수부족과 학습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생입장에서 몇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각 과별 교수 충원은 단지 학교당국의 우선순위에 의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수충원에 우선적인 개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둘째, 학교당국은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앞서 과연 대학 발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학생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것이며, 수원캠퍼스가 설립되었을 당시의 취지에 맞게 수원캠퍼스의 비젼을 제시해야만 보다 폭넓은 이해의 틀을 마련할수 있을 것이다.

세째, 지나친 시간 강사에의 의존은 학문의 내실화와 질적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학교당국의 근시안적 안목을 좀더 나은 경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할것이다.

네째, 교수 스스로가 올바른 교수법과 학습체제의 개선에 노력함으로서 자기혁신과 학생들의 참여도및 신뢰도를 증진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학우 대중은 '보다 질높은 교육'과 '보다나은 환경에서의 교육'을 받기위해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지속적 관심과 참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학내외적인 권리주장에 당당히 나설수 있는 첩경 일 것이다.

진 선 하
〈사회대 행정·3〉

朔風

"위대한 꿈에 깨져버리는 소시민의 꿈"

1972년 10월 00일

1980년대엔 1천불 국민소득으로 우리나라를 선진국에 들어서게 하고 도시와 농촌은 가정마다 자가용이 있는 서구 여러나라에 못지않는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나만이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것은 故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다.

1980년 12월 00일

1990년대까지는 걱정없다. 정치는 우리가(?)있으니 정부나 군부는 안정을 찾을 것이고 수출만 잘하면 칭찬받는 대통령이 되고 역사상 '광주폭도'들의 국가위협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낸 위대한 위인으로 남을게다. 이것은 백담사 前 전두환 대통령의 꿈이였다.

1989년 5월 00일

올림픽을 잘치른 업적, 6.29를 잘한 인물, 귀가 커서 민심을 잘헤아리는 보통사람. 이것만으로도 나는 순수한 민간 대통령으로 귀감이 될만하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꿈일 것이다.

1990년 5월 28일

지긋한 최루탄냄새보다 향긋한 꽃내음을 맡고 싶다. 가진자의 부정과 뒤죽박죽의 정치판은 이제 보고싶지도 않다. 도덕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회가 그립다.

이것은 우리 소시민들의 조그만 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치로 부터 상명하달 되어온 우리민족의 꿈, 아니 우리들의 꿈을 보아왔다. 통계와 잘짜여진 매체의 역할과 거미줄같은 조직과 조직의 연계로 겉으로 드러난 역대 위정자의 꿈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눈앞에 신기루처럼 보여져 왔다. 이러한 꿈속에 묻혀져 버린 우리의 작은 꿈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져 버린 낙서인가.

거대여당이 정치적 안정세(?)를 누리면서도 그들의 꿈은 우리들의 꿈과는 너무나도 유리된 채 독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난주 일본으로 부터 痛惜이라는 말한마디를 얻기위해 치뤄야 했던 우리의 외교정치는 痛惜을 '뼈저리게 후회함'이냐 '몹시 애석함'이냐로 설왕설래해야만 했다. 속마음과 겉치레를 양분해 살아온 일본의 자존심을 이겨낸듯한 이러한 우월감이 과연 우리에 위정자들이 우리들의 이 긴박한 시대의 꿈을 대변해 준 것인가.

오히려 감사원의 모 감사관이 선언한 양심고백이 더 신선하고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스레 해준다. 신뢰성을 상실한 정치가의 공약보다도 환자를 데리고 치료를 거부하는 이병원 저병원을 뛰어 다녔던 말단 경찰관이 더 존경스럽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좌우하던 위정자치고 사실을 아니 숨겨진 자기만의 꿈을 드러낸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며칠전 이상의 前 과기처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순수하다 못해 천진스런 느낌을 준다.

"일본 자민당의 정치전략을 예를들어 우리나라 민자당도 집권을 계속하려면 과학기술 육성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귀결되는 꿈을 강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암초〉

학원소식

교수동정

홍성화교수 도일

▲홍성화(의대·의학과)교수=오는 6월2일부터 9일까지, '간담도 외과학회' 참석차영국방문 ▲김진수(체대·체육과)교수=오는 6월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일본여성의 성주기및 초경연령'에 대한 공동연구차 도일

동문모임

운호고 동문회

【서울캘퍼스】▲평택고·평택여고=오는30일 오후 5시, 녹원 ▲구정중학교=오는 6월3일 오후 3시, 구정중학교 ▲운호고=오는 6월1일 오후 6시, 소락원

【수원캠퍼스】▲오산고=오는 30일 오후 5시, 1호관휴게실 ▲부산브니엘고= 오늘 오후5시 30분, 1호관휴게실

습 득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시계(금테)=지난25일 스쿨버스에서◆학생증=△이경희(미교·87) △최문익(체육·83) △김현정(간호·86) △김영기(생물·87) △용성주(미교·89) △김은옥(식품영양·89) △서경구(국민윤리·86) △서남정(수학·84) △조희정(기악·85)

【수원캠퍼스】▲학생증=△이성원(전자계산·89) △유정희(사회·89)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최광우(수·3) ▲박상균(철·2) ▲정해령(식영·3) ▲김지혜(국문·3) ▲허영미(가관·1) ▲조은주(가관·4) ▲김미정(가관·3) ▲임산(무역·2) ▲김민주(경영·3) ▲이세규(경제·3) ▲정찬수(무역·3) ▲신두섭(경제·2) ▲김영묵(무역·4) ▲강흥섭(행정·3) ▲최원준(법·2) ▲윤추민(외무고시반)

'90 2학기 교비 해외연구 파견교원 선발

본 국제교류위원회에서는 교원교비해외연구파견 규정에 의거 본교 교원의 해외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0학년도 2학기 교비 해외 연구파견 교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합니다.

-아 래-

1. 신청자격: 본교에 3년이상 재직중인 전임교원단, 국내외 학술지원금에 의해 장기 (6개姻월이상) 해외연구활동을 하고 귀국한 자는 만 3년이 경과되어야함.
2. 선발인원: 3명
3. 파견기간: 1990년 9월1일-1991년 2월28일
4. 제출서류: 국제교류위원회 사무국
6. 신청접수기간: 1990년 5월14일-6월4일
7. 수혜자의 의무

가. 연구비 수혜자는 해당학기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출국 30일전에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초청장 등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 수혜자는 귀국 후 2년간 의무봉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 불이행시에는 지급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6개월이내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라. 연구비의 수혜자는 귀국후 1월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제교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혜자는 $3,600(왕복항공료 별도지급)의 연구비를 지급 예정임.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컴퓨터 특강 인원 모집

총학생회 인권 복지 위원회에서는 경희 학우의 권익과 방학중 발생하는 경희 수원 캠퍼스의 사장화를 방지하고자 컴퓨터의 초보자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오니 경희 학우의 뜻깊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인원 : 500명(선착순 접수)
2. 강습 시간 : 6.23-8.18(방학 기간)
3. 프로 그램
   1)MS-DOS
   2)WORD PROCESS
   3)DBASE III
   4)KEY BOARD 조작법
4. 강의 시간표(강의 시간 90분)
   1)10:00-11:30
   2)11:40-13:10
   3)13:20-14:50
   4)15:00-16:30
   5)16:40-18:10
5. 사용 기종 : 고려 시스템(XT-640KB, 2-FDD)
6. 편 성 표 : A반 : 월,수,금
   B반 : 화,목,토
7. 수 강 료 : 30,000원(교재별도)
8.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5월 30일까지
9. 강의 장소 : 경희대 수원 캠퍼스
10. 문의 및 접수 : 인권 복지 위원회(T. 2804)

** 참고사항 **
-본 특강은 신청자가 300명 이하일때는 설치 비용 때문에 강좌를 개설할 수 없음.
-강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울 캠퍼스 예정)
-교통편 및 식당 운영가능.
-컴퓨터 전임 강사 배정.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총학생회 인권복지 위원회

1990년 하계 영어회화·일본어 특강안내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영어회화와 일본어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좌기간:1990.7.9.-8.31. (8주)
· 강좌명·강사 · 반별·강의실

초급영어회화 (각반 15명)	강 사: WILLIAM DEFRLURI 월 수 금 아침반, 오전반, 저녁반 강의실: 본관 33 강의실
중급영어회화 (강사각반 15명)	강 사: FREDJ. SELIGSON 월 수 금 아침반, 오전반, 저녁반 강의실: 본관 35강의실
고급영어회화 (각반 15명)	강 사: MARK A.KRAMAR 월 수 금 아침반 도전반, 저녁반 강의실: 본관 36 강의실
초급일본어 (각반20명)	강 사: 김 순 희 월 수 금 아침반, 오전반, 저녁반 강의실: 본관 37강의실

· 강의시간: 아침반 07-30-09:00 오전반 09:20-10:50
저녁반 19:00-20:30
· 수 강 료: 본교재학생 80,000원, 타교생 및 일반인 100.000원
· 접수기간: 1990.6.4-6.30.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언어교육연구원 (AV센터내)
· 문의전화: 961-0080,0081-3, 961-0211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90하계 대학생, 교수 자비 국외연수 시행계획 안내

연수사항안내

구분 \ 연수대상	대 학 생		교 수
1. 연 수 대 상	대학(원)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 수 지 역 (코스)	중국	홍콩(경유)-북경-연길-백두산-연길-북경(경유)-오사카-나라-교또-오사카	좌 동
	소련·동구	모스크바-소피아-부다페스트(경유)-뮌헨-런던	좌 동
3. 연수시기 및 기간	하계방학 기간중 (중국10박11일, 소련·동구13박14일)		좌 동
4. 모 집 인 원	중국 210명(7개반) 소련·동구 180명(6개반)		중국 30명(1개반) 소련·동구 30명(1개반)
5. 1인당 연수경비	중국1,261,903원 소련·동구 1,791,000원		좌 동
6. 신청마감일	90.6.9(토)		90.6.9(토)
7. 신 청 방 법	학생과(장학과)에서 신청서, 지도교수의견서, 해서약서를 받아 신청금 지참, 해당여행사에 직접 신청(접수)(선착순)		교무과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금 지참, 해당여행사에 직접 신청(접수)(선착순)
	*단, 지방대학은 신청금을 해당여행사 온라인 구좌로 송금하고, 해당서류는 팩시밀리나 속달우편으로 송부가능		
8. 모 집 홍 보	대행여행사가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포스터부착, 안재책자 배포등 대학과 협조하여 홍보실시 예정(대행여행사에서 별도 통보)		

9.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여행사로 연락하시기 바람.
*중국: 동화관광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1 (대성빌딩2층) Tel.730-3411
*소련·동구: 아주관광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5-95(유원빌딩4층) Tel 753-5051

경희대학교 학생처

독자 보충역 복무기간 단축제도 폐지에 따른 안내

금번 독자 보충역 복무기간 단축제도 폐지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 이 일부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됨에 따라 많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무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용

1. 단축제도 폐지및 변경: 1990년도 중반부터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며 가족계획의 정착으로 독자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
2. 관계법령 개정 시기: 1990년말 이내
3. 복무기간 단축제도 폐지 적용 대상: 197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독자부터 적용

서 울 지 방 병 무 청 장

교 회 안 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늘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분이나 지방에 교회를 둔 분들은 본 교회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고 교회봉사9서가대·교회학교 교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위치〉
경희의료원 6층 본관과 별관사이

〈예배시간〉
주 일 아 침: 1부 9시, 2부 11시
주 일 저 녁: 매주 일 오후 7시
삼 일 저 녁: 수요일 7시
대학 청년부: 매 토요일 오후 5시

성 지 에 서 온 교 회